

제92호 2010. 1

□ 권두언

- － 변화의 시대, 한국의 진로 홍순영 5

□ 일반논문

1. 새로운 100년의 시작을 위하여 권철현 11
－ 한·일 강제병합 100년의 미래를 생각한다
2. 6자회담 재개와 2010년 남북한관계 전망 유석렬 20
3. 리스본조약의 발효와 한·EU 전략적 동반자관계 출범 김은중 33
4. 2010년 G20 정상회의의 서울 개최 - 의미와 과제 최원기 40
5. 바람직한 외교관 상(像) - 서희(徐熙) 장철균 57
6. The Fallacy of the DPRK's Uranium Enrichment Program - A Technical and Historical Myth 권희석 74

□ 회원칼럼

1. 한일합병 100주년과 역사인식의 문제 유종현 93
2. 개발도상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의료사업 조기성 103
3. 대한민국 외교와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김승호 107
4. 뉴욕 하이드 파크를 찾아서 이경구 116

□ 신간안내

1. 민주주의와 공산주의(황장엽) 박창일 118
2. 지구촌에 새긴 KOICA의 발자국, 1991-2009(박대원) 최영철 123

□ 자료

1. 한·중·일 정상회담 공동성명(베이징, 영문, 10.10) 129
2. Foreign Policy of Mongolia(영문, 11.4) Terbish Chimeddorj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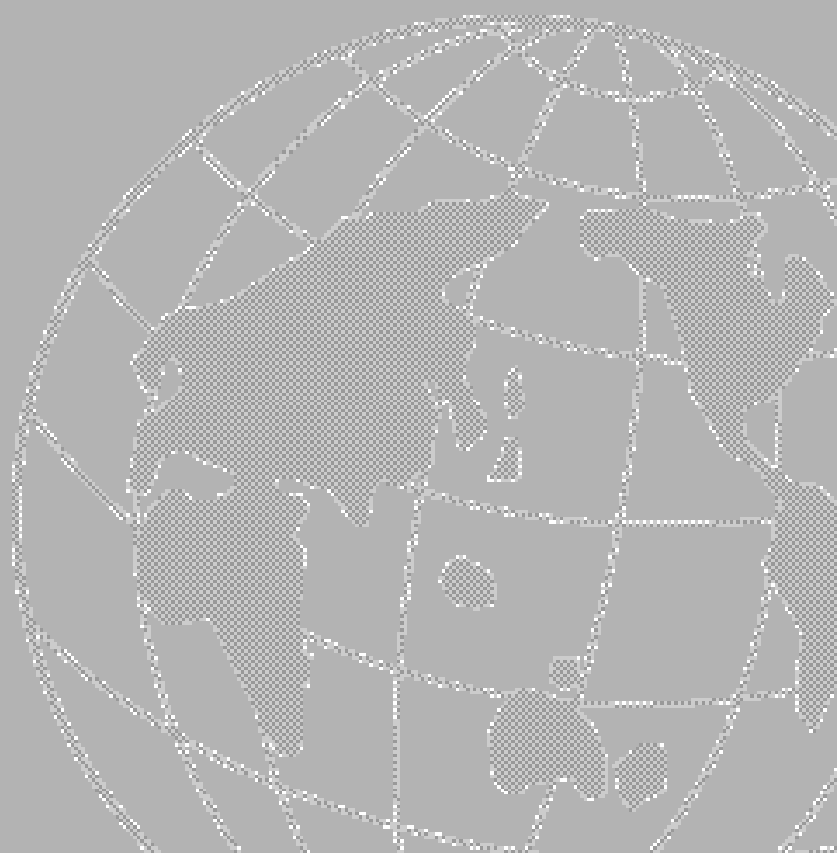
□ 편집실에서

144

제자: 원곡 김기승 선생 휘호

본 『외교』지에 게재된 글은 어디까지나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 외교협회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두언



변화의 시대, 한국의 진로

홍 순 영*

I. 변화의 시대, 한국의 진로

20세기 후반에 있었던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이데올로기 냉전 이후 소련이 해체되어 러시아 연방으로 재등장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역사의 주류가 되고 있었다. 이것을 역사의 종점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었던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세계화의 큰 흐름을 타고 세계의 공통적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지고 전파되고 있었다. 큰 틀에서 보면 이것은 지금도 그러하다. 시장경제는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보는 견해가 강하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의 변창을 앞둔 21세기의 아침에 알카에다가 주도한 미국에 대한 테러공격행위 그리고 연이어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경제위기의 전 세계적 파급은 21세기의 큰 사건이 되어 세계공동체의 큰 과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세계는 큰 변화의 와중에 빠져있다.

II. 테러와의 전쟁 그리고 경제불황

테러와의 전쟁이 10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이 문명 간의 전쟁 또는 종교 간의 전쟁인가. 이슬람권의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인가. 이 테러와의 전쟁은 세계전쟁은 아니더라도 국제전쟁이 되어 있다. 이 전쟁을 두고 세계열강들은 협의도 단합도 잘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슬람권 내부에서도 알카에다의 자폭테러 전쟁을 비판하고 거부하는 종파가 늘어나고 있다. 이슬람교의 신정(神政) 전통이 흔들리고 있다. 언제, 어떤 내용으로 서방문명권과 이슬람권이 협의·협력하고 평화공존하게 될 것인가.

테러와의 전쟁 와중에서 2008년 미국 내 금융·재정 위기에서 비롯하여 세계 금융시장과 경제의 흐름이 마비되어 세계경제는 불황이라는 큰 장벽에 부딪쳐 있다. 이 장벽 앞에서 모든 경제강국들이 그리고 새로 등장하는 후발 경제국들이 함께 협의·협력하고 단합

* 한국의교협회 회장, 전 외교통상부장관, 전 통일부장관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0년 11월 한국에서 제5차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이다.

테러와의 전쟁 그리고 경제불황의 위기에 처하여 세계의 강대국들이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서는 각국이 독자적이 아니고 상호 협의하고 협력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인식하고 수락하고 있다. 각자 독립이 아니고 상호의존 협력(independence to interdependence)의 시대로 들어서야 한다는 인식이다. 이러한 요구가 이 시대의 특수한 요구인 것으로 보인다.

Ⅲ. 21세기 역사의 흐름

테러와의 전쟁 그리고 경제불황이라는 큰 도전의 바닥에는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역사의 큰 흐름이 있었다. 세계는 하나의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21세기에 떠오른 많은 새로운 문제들은 테러리즘과 경제불황과 함께 지구촌의 과제가 되어 세계공동체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과제들이란, 경제자원의 분배, 이상기온과 기후변화의 문제, 인종과 종교의 문제, 핵비확산의 문제, 빈곤과 질병의 문제 등이다. 이러한 모든 기존의 과제 그리고 새로운 과제들에 대

응하는데 있어서는 세계공동체의 대응을 주도할 수 있는 지도자국가 또는 지도자국가들 간의 협의와 협력이 있어야 한다. 지도자국가들의 향도에 따라 세계공동체가 동참하여야 한다. 이것은 UN 조직과는 다른 조직이다. 오늘의 공동체를 향도할 국력과 권위를 가진 많은 강대국 모임이 있다.

미국과 중국 및 유럽연합 그리고 러시아권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가운데서 핵심적인 지도자국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으로 지목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정치체제와 국력에서 차이는 있으나 양국은 공히 시장경제제도 밑에 있고 중국도 자유민주주의의 큰 흐름 속에서 독자적인 안목과 시간표를 가지고 민주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대등한 동반자관계 위에서 주요 국가들을 선도하면서 21세기의 새로운 정치·경제 질서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질서를 지향하는데 있어서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많은 나라들이 자유와 평화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관을 내세우고 평화질서의 회복을 계속 추구하게 될 것이다. 평화질서를 위한 단합과 노력에는 더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동참하게 될 것이다.

경제불황의 극복에 있어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동반자관계가 더 돋보인다. 양국 간의 국력의 차이는 있으나 협의와 협력에서 오는 세계경제의 안정에서

오는 큰 이익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많은 나라들이 국제경제협력공동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Ⅳ. 미·중 동반자관계의 내실(內實)과 장래(將來)

미·중의 동반자관계가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것인가는 나라의 성장의 문제이다. 양국은 각각 국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나라의 국력은 여러 가지 요소로 측정될 것이다.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정치력(국내적 단합을 이루는 일) 그리고 교육과 과학의 힘 그리고 열강의 지지와 지원을 받을 도덕적 권위(moral authority)의 폭까지 모두가 국력의 요소들이다. 그래서 국력의 측정은 간단한 숫자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과 중국의 동반자관계를 두고 그 순위를 논한다는 것은 의미가 약하다.

중요한 것은 미·중 간의 동반자관계가 어떻게 운용되는가이다. 양국은 국가이익이나 권위를 위하여 경쟁할 수 있으나 공동체의 존재와 번영을 위하여 동반 협력하여야 한다는 더 큰 이익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미국 주도의 강도(強度)와 기간을 예측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은 아니다. 미·중 양국이 동반자 협력관계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V. 한국의 가치관과 진로

오늘의 시대 그리고 세계공동체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관은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이며 자유민주주의의 경제체제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이다. 이 시대의 열강들은 모두 부와 번영을 찾아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다.

공산주의는 70년에 걸친 임상실험 후에 폐기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의 오늘날의 경제개혁·수정 논의는 시장경제의 운영체제를 일부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이지 시장경제체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지향하여야 할 첫 번째 목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에 대한 바른 평가와 확신을 굳게 하는 것이다. 모범적 자유민주선진국가가 되어 세계공동체 안에서 이웃나라들과 협의·협력하는 단합의 이익을 내다보고 그 위에서 성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민주한국 건국60년이 지나서도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에 대한 범국민적 단합이 아직 약하다.

분단60년에 남한과 북한은 자유민주주의와 독재공산주의로 확연히 구분되어 있다. 더구나 북한은 선군정치(先軍政治)와 핵보유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성장과 모범은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

을 위한 필요한 기반이 된다. 남한의 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는 북한의 장래를 향한 모범이고 교육이며 남북경제공동체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최근에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승격함으로써 민주국가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이 하였다.

한반도의 비핵화, 남북평화공존 그리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 우리의

노력은 이 변화의 시대에서라도 국제공동체의 지지와 지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4강외교는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 더 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한국의 빛나는 장래를 내다보고 나라의 진로(進路)를 바르게 보고 나가야 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임무이다. **외교**